

# 시 여파 광주지역 삼계탕집 손님 '뚝'

“대목(복날)을 앞두고도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이 이어지네요.”  
 초복을 하루 앞둔 11일 점심시간 대 광주 광산구 한 삼계탕집 발 디딜 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80석 규모의 가게 내부는 한산한 모습이였다.  
 중년 부부와 직장 동료 몇몇만 테이블 3개를 차지하고 있었고, 점심시간 특유의 시끌벅적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가 건네준 반찬을 옮겨담던 주인 이모(54)씨는 힘없는 말투로 “지난달까지 이어진 AI 여파로 매출이 30~40% 급감했는데, 초복을 앞두고도 손님이 절반 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년 간 장사하면서 초복 전날 이렇게 손님이 안 온 적은 처음”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씨는 복날 3일 전부터는 손님

## 매출 40% '급감' 알바생도 안 뽑아 대형 삼계탕집은 회복세 접어들어

이 많아 단기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었지만 올해는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장기간 이어졌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로 양질의 닭을 원하는 만큼 구입하지 못했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광산구 우산동 80석 규모의 한 전문삼계탕집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였다. 초복 직전에는 오전 11시부터 손님이 가득 차기 시작했던 지난 해와 달리 손님 4명만 자리하고 있었다. 예년에는 대목에 예약도 받지 못한 정도로 가게가 붐볐지만, 이날은 예약이 8건에 그쳤다. 넓은 가게

에는 직원 4명만 바빠 움직였다.  
 삼계탕집 업주들은 지난해 10월 28일 처음 발병한 시가 지난 5월께 평시방역 전환으로 돌아서자 겨우 한숨을 돌렸었다.  
 하지만 시가 지난달 전북 군산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다시 확산했던 점이 북받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게 직원 강모(65)씨는 “전날 점심시간대에도 40명 정도만 찾았다. 초여름 발생한 AI의 여파로 삼계탕집을 찾는 손님이 반토막 난 셈”이라며 “삼계탕을 먹어도 되느냐는 문의를 들을 때면 속상하다”

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매출이 40% 가까이 감소한 중소 규모 삼계탕집과 달리, 시내권에 위치한 200석 이상의 대형 프랜차이즈 삼계탕집들은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치평동과 상무지구에서 300석 규모의 삼계탕 전문점을 운영 중인 업주들은 “지난달까지 힘들었는데, 복날을 맞아 손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발생한 AI로 산란계 등 닭 3173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까지 닭 도축 물량이 10% 가량(지난해 대비) 줄었다.  
 AI에 걸린 닭·오리는 시중에 유통될 수 없으며, 75도에서 5분만 가열하면 안전하다.

임형택 기자

## 미국 해병대 급유기 추락 최소16명 사망

미 해병대 공중급유기 KC-130 1대가 1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추락해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미시시피주 르플로어 카운티 지역 응급관리 당국은 KC-130 1대가 이날 오후 4시에 현지 이타베나 인근 대두 농지에 추락한 가운데 탑승자 16명의 시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C-130기는 C-130 군 수송기를 재급유용으로 개조한 기종으로 병력 수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고 당시 항공기에 1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고 잔해가 5km 반경에 흩어져 있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당시 기종이 어떤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급유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 지 등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 日규슈 북부 지역 폭우 사망자 25명으로 늘어

일본 규슈(九州) 북부 지역의 기록적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5명으로 늘었다.  
 NHK 및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린 후쿠오카(福岡)현과 오이타(大分)현에서는 전날 4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 11일 현재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폭우가 발생한지 1주일이 돼가지만 아직까지 24명이 연락이 닿지 않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이들 실종자는 모두 후쿠오카현 아사쿠라(朝倉)시 및 우키하시에서 발생했다. 후쿠오카현이 가장 컸던 아사쿠라시에는 이번 폭우로 24시간 강수량이 545.5mm로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지위대와 소방 당국이 실종자 수색 및 인프라 복구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현재 오이타현 히타(田田)시의 226가구 629명을 제외하고는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의 파란지시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히타시에서는 또 120여명이 고립돼 있지만 오는 12일 해제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규슈 북부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11일 오후 국지적으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 IS 축출한 모술, 민간인 구조 시급

이라크군이 모술에서 3년여만에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한 가운데 모술에 남은 민간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이라크 정부에 모술의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규모 민간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지부의 린 말러프는 “모술의 민간인들이 목격한 공포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술 시민들은 정부가 정의를 구현하고 정당하게 배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IS가 모술에 칼리프를 선언한 뒤 지난 3년여 동안 민간인이 100명 이상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IS 무장대원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이라크군과 미군 주도의 국제연합군이 IS 축출을 목적으로 도시에 무차별 공습을 가한 결과다.  
 난민촌에서 지내고 있는 서부 모술 출신의 살리 모하마드(36)는 “형제 두 명이 실종됐고, 그들이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집도 파괴돼 돌아갈 수조차 없다”고 했다. 그는 “모술에는 여전히 IS 잔당들이 남아 있다”며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8명의 아이들과 난민촌에서 사는 하프사(40)는 “집도, 차도, 가족들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모술의 미래는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멜라니 마컴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 대변인은 “서부 모술 최전선에 갈수록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식량, 물, 의료용품 없이 몇 달을 동안 포위당해서 지내고 있지만 이라크군과 IS의 총탄으로 우리의 접근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정부와 연합군이 민간인을 보호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며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원조의 손길을 건네고, 정의를 구현하고, 도시 재건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발간해 모든 분쟁지역에서 민간인 사망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독립적인 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조인호 기자



**잠수교 청소중**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진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차량이 통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 “치매환자 요양병원서 폭행 당했다” vs “욕설 제압 과정”

**80대 환자 전치 2주 부상**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이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측은 환자가 과격한 행동을 보여 제압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11일 환자 가족과 요양병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에 광주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A(86)씨와 병원 이사장 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가족은 환자 A씨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눈 부위가 부어 있는

것을 보고 진위를 파악했다.  
 A씨는 가족에게 “이사장과 연정을 했으며 진정이 되지 않은 이사장이 자신을 끌고가 폭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 측에 당시 CCTV 등을 공개할 것과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가족은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누군가에 의해 맞은 것으로 보이며 다발성 타박상과 멍 증상이 보인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11일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병원측은 폭행은 없었으며 A씨가 과격한 행동을 보여 제압하

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A씨가 다른 치매 환자를 밖으로 보내려 하자 제지했다. 하지만 A씨가 심한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자 ‘환자 안정방’으로 데려갔다’며 “이 과정에서 A씨와 이사장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몸싸움이 있던 당일에는 이마 쪽에 멍자국이 있었고 하루 정도 지나 멍이 눈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 대해 가족들에게 모두 설명했다. CCTV는 녹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안전처, 국민 안전 교육 포털 서비스

국민안전처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자료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국민 안전 교육 포털(kasem.safekorea.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국민안전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신의 생애주기나 폭염, 승강기, 캠핑 등 관심있는 분야의 동영상자료, 국민행동요령,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포털은 여러 정부기관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육자료와 전국에 있는 안전체험관의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기준으로 분류해 제공한다.  
 태풍 폭염, 지진 등 시기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 관련해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행동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화면에 배치했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제작한 동영상 교육자료 300여편을 모아 제공한다. 동영상은 아동기·성인기·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눈높이에 맞게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으로 제작한 것으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청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155개 안전체험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설현황 정보를 모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체험관 홈페이지를 찾아 검색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국 지도를 통해 체험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람중심·생명존중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